한화리조트, 서울불꽃축제 티켓 이벤트

한화리조트는 특별 이벤트 '나랑 불꽃축제 보러 가지 않을래?'를 진행한다. '한화와 함께하는 서울세계불꽃축제 2019'를 기념해 마련했으며 리조트 공식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 이벤트 페이지에서 '누구와 함께할 예정인가요'라는 질문의 답변을 선택하면 된다. 추첨을 통해 서울불꽃축제 티켓(50명·1인 2매)과 카카오톡 이모티콘(150명)을 준다. 이벤트 기간은 10월 2일까지며 당첨자는 10월 3일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불꽃축제가 열리는 10월 5일에는 여의도 한강공원 한화리조트 행사 부스에서 오프라인 이벤트도 열린다.

롯데호텔서울, 여경옥-테쎄 셰프 컬래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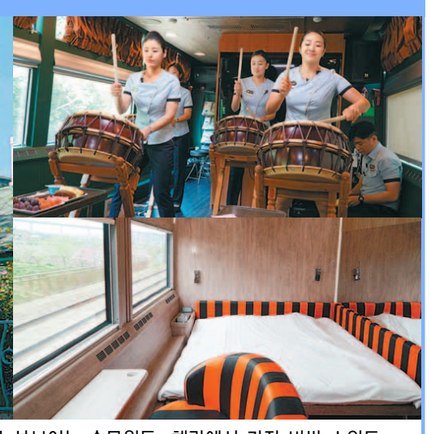
테쎄 여경옥

롯데호텔서울은 중식당 도림에서 10월 10일과 11일 중식과 이탈리안 요리의 컬래버레이션을 진행한다. 중국 4대 진미에 정통한 광둥요리 대가인 롯데호텔의 여경옥 셰프와 8년 연속 미슐랭 1스타를 유지하는 이탈리아 피에몬테주 레스토랑 라 레이(La Rei)의 파브리지오 테쎄 셰프가 나선다. 랍스터와 전복 등을 활용한 중식 요리와 세계 3대 진미 트러플 중에서도 최상급으로 꼽히는 화이트 트러플이 들어간 이탈리안 요리를 코스로 맛볼 수 있다. 런치는 12만 원, 디너는 15만 원(이하 세금 및 봉사료 포함)이다. 김재범 기자

편집 | 심승수 기자 sss23@donga.com

김재범 기자의 투얼로지 | '슬로우 투어'의 진수, 레일크루즈 '해랑'





지금은 공원으로 바뀐 군산선의 임시역 임피역 앞을 지나가는 레일크루즈 해랑, 다양한 이벤트가 열리는 해랑 라운지칸 선라이즈에서 신나는 북 연주를 선보이는 승무원들, 해랑에서 가장 비싼 스위트룸. 냉장고, 와이드평면TV, DVD플레이어 등을 갖추고 있는데 1호차에만 1량 3실로 편성해 운영하고 있다.(왼쪽 사진부터 시계방향) 군산 | 김재범 기자 oldfield@donga.com·코레일관광개발

영화처럼 즐기는 '낭만의 칙칙폭폭'

서울-군산-여수-서천 '1박2일' 코스
침대는 기본…카페칸 와인 등 무료
승무원이 아카펠라·가야금 연주도

여행에서 교통수단은 목적지까지 빠르고 편하게 이동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하지만 때로는 목적지까지 가는 과정 자체가 중요한 여행 목적이 되는 경우가 있다. 크루즈 여행이 대표적이다. 거대한 크루즈 선박에 숙박, 레스토랑, 엔터테인먼트, 레저, 쇼핑 시설을 갖추고 이것을 이용하는 경험이 여행의 핵심 콘텐츠가 된다.

레일크루즈는 이런 바다 위 체험을 땅으로 옮겨 기차로 즐기는 여행이다. 소설과 영화에 자주 등장한 유럽의 오리엔탈 익스프레스를 비롯해 호주의 인디안 퍼시픽, 인도의 팰리스 온 휠스, 아프리카의 로보스 레일, 골든 이글 트랜스 시베리안 익스프레스 등이 유명한 해외 레일크루즈다.

우리나라에도 '기차여행의 백미'라 할 레일크루즈가 있다. 2008년 10월부터 운행하고 있는 '해랑'이다. 가을의 정취가 한창 무르익어가는 9월 중순, 해랑을 타고 서울역을 출발해 군산-여수-서천을 거쳐 돌아오는 1박2일 여행에 참여했다.

●카페칸서 와인 한 잔, 레일크루즈의 낭만

사실 1박2일 일정이라지만 부지런 떨면 KTX를 타고 당일 왕복할 수도 있는 구간이다. 하지만 이런 곳을 아기자기한 동선으로 하룻밤을 자며 돌아보는데 해랑 여행의 묘미가 있다.

아침에 서울역서 출발해 첫 기착지 군산으로 가는 동안 카페칸서 커피를 즐기며 차창 밖을 바라봤다. KTX를 타면 쏜살같이 지나가는 통에 제대로 보지 못했던 차창 밖 풍경들이 눈에 들어온다. 그러다 피곤하면 객실로 가서 침대에 누워 잠을 청한다. 아니면 카페칸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맥주나 와인을 즐기면서 한가로운 여유를 만끽할 수도 있다. 여정의 여백이 핵심인 슬로우 투어의 전형이다.

열차 기착지에는 지역 명소를 돌아보는 버스투어가 기다린다. 투어를 마치고 다시 기차로 돌아오면 다음 목적지로 이동한다. 해랑은 기차 내에 간식과 음료 서비스는 있지만 정식식사 서비스는 없다. 대신 기착지의 지역 맛집을 안내한다.

모든 일정을 마치고 기차로 돌아오면 객실서 따뜻한 샤워도 할 수 있다. 개운한 몸으로 침대에 누우면 리드미컬한 열차 진동이 자장가처럼 잠을 재촉한다.

●승객관리, 투어가이드, 공연 퍼포머까지 1인3역 승무원

이번 여행에서 특히 눈길을 끈 것은 1인3역을 해내는 해랑 승무원들의 뛰어난 능력이었다. 기차 안에서 승객의 요구사항을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는 역할은 기본. 기착지에 내리면 버스투어를 하는 동안 관광명소에 대한 설명부터 안내를 하는 여행 가이드로 변신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승객들을 위해 라운지칸에서 진행하는 각종 공연이나 이벤트도 이들 승무원들이 담당한다. 아카펠라 합창부터 가야금 연주, 북 합주에 이르기까지 꽤 수준높은 퍼포먼스를 펼치는 모습을 보면 절로 감탄사가 나온다.

●편의시설 부족 객차 업그레이드 절실

국내 유일 레일크루즈인 해랑이 요즘 고객의 까다로운 눈높이를 만족시키려면 풀어야할 과제도 있었다.

우선 시급한 것은 객차 업그레이드다. 1호차 23실 54명, 2호차 24실 72명 정원으로 운영하는 해랑은 2003년 로템에서 제작한 무궁화호 객차와 식당차를 개조해 운영하고 있다. 그동안 관리를 꽤 잘하기는 했지만 16년이 된 무궁화급 객차이다 보니 한계는 존재했다. 여기에 객실 와이파이나 USB 충전 같은 편의시설이 부족했고 인테리어 디자인이나 비품도 꽤 비싼 상품 가격에 비해 고급스러움이 떨어졌다.

차내 엔터테인먼트도 현재처럼 승무원들의 '열정 봉사' 무대 외에 아이들을 위한 완구나 교재, 개인 VR기기 같은 다양한 서비스가 없는 것이 아쉬웠다.

서천 | 김재범 기자 oldfield@donga.com

서울의 이야기가 담긴 '이곳'

바이산·이랜드 크루즈·저스트케이팝
유니크베뉴 스토리텔링 공모전에 선정

독특하다는 뜻의 유니크(unique)와 장소를 뜻하는 베뉴(vanue)가 합쳐진 합성어 유니크베뉴는 지역 고유의 문화나 특색을 간직한 공간을 말한다.

서울관광재단(대표이사 이재성)은 최근 '유니크베뉴 스토리텔링 공모전'을 통해 성수동 카페 바이산, 한강 이랜드 크루즈, 엔터테인먼트 레스토랑 저스트케이팝 등 3개를 선정했다.

바이산은 성수동의 낡은 창고를 개조해 젊은 예술가의 작품으로 꾸민 갤러리 카페이다. 이랜드 크루즈는 한강에서 서울 불꽃축제, 반포 무지개 분수 등 다양한 문화와 레저를 즐기며 서울만의 여가문화를 경험하는 복합테마파크로 주목받고 있다. 저스트케이팝은 국내에서 처음으로 선보이는 K-POP 테마 레스토랑이다. 서울관광재단은 10월부터 세 유니크베뉴의 홍보영상 제작을 지원하고, 여행 관련 인플루언서, 블로그 체험단, 인기 SNS 채널과의 컬래버레이션 등 다양한 홍보를 진행한다. 특히 이랜드크루즈와 저스트케이팝은 10월 초 SNS 이벤트를 통해 300명의 시민에게 뮤직 크루즈 이용권 또는 저스트케이팝 초대권을 제공한다. 김재범 기자



최초의 K-POP 테마 레스토랑으로 유니크베뉴에 선정된 저스트 케이팝 사진제공 | 서울관광재단

작은 움직임 하나까지 모조리 흡수하는~ 잠이 솔솔~ 숙면베개

눕는 자세에 따라 베개 높이도 바꿀 수 있는 충전재 내장
수백만개의 마이크로 에어볼



해마다 목디스크 환자가 늘고 있고 6년사이에 14.3%나 증가했다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밝혔다. 나에게 맞지 않는 베개사용과 바르지 못한 수면자세가 그 원인이다. 숙면은 베개가 좌우한다는 말을 실감하게 하는 현실이다. 에코벨베개는 고밀도 저탄성의 쿠션감의 수백만개의 마이크로 에어볼이 내장되어 있어 편안한 수면상태를 유지시켜 준다. 마이크로 에어볼은 지름 약 1mm의 사이즈로 수백만개가 들어 있으며 밀도는 높지만 탄성이 낮아서 아무리 강한 충격도 흡수해내는 고밀도 저탄성의 쿠션감을 느끼실 수 있다. 특수 코팅 된 마이크로 에어볼은 물을 흡수하지 않아 베개를 통째로 세탁할 수 있어 위생적이다. 또한 인체공학적 입체 디자인과 마이크로 에어볼이 숙면을 방해하는 작은 움직임 하나까지 모조리 흡수하여 쾌적한 숙면을 유지한다. 베개는 변기보다 50~90배 많은 세균이 살고 있다. 베개는 세균이 번식하기 딱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다. 보기에 깨끗하다고 해도 문제가 달라지지 않는다. 그래서 베개의 통기성과 위생이 중요하다. 에코벨베개는 통째로 물세탁이 가능해 항상 청결하다. 각기 다른 높이의 굴곡을 이용하여 어떤 자세로 누워도 머리와 목, 어깨를 더욱 편안하게 받쳐주어 편안한 숙면과 동시에 바른자세의 수면을 도와 목뼈의 건강까지 지켜준다. 개개인의 신체에 맞게 베개의 높이가 조절이 되기 때문에 누구나 어떤 자세에서도 편안하게 숙면이 가능하다. 출시기념으로 39,800원에 판매한다. 2개 구입시 1만원 할인해 드린다. 더 자세한 내용은 www.더드림365.com 또는 전화 **1800-6639**으로 문의하면 된다. 입금계좌 〈농협〉301-0236-7453-61 (주)더드림365이다. 택배비 3,000원 소비자 부담.

이런 제품이 있었다니? 이런 변(便)이 있나! 한포만 먹어도 굵은변이~

효과 만큼은 틀림 없습니다~! 효과 없을 시 즉시 반품 처리!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인정한
아침엔쾌변
3일분 무료체험행사



제조원: 삼성제약(주)

쾌변 전문 연구소가 만든 쾌변제품이 출시돼 화제다. 차전자피 식이섬유로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드실 수 있도록 스틱형으로 만들었다. 강렬한 태양빛을 받고 자란 질경이과 식물의 씨앗을 차전자라하며, 씨앗 껍데기를 차전자피라 한다. 차전자피는 자신의 무게보다 40배나 되는 수분을 흡수하고 부피가 팽창하게되어 배변활동을 원활하게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차전자피는 식물 성분이기 때문에 장기간 섭취해도 안전하며, 지속적으로 섭취하게 되면 장운동의 리듬을 살려준다. 차전자피의 식이섬유는 변을 부드럽게 해주며 변의 양을 늘리고 변을 탄력있게 하며 장을 자극 장운동을 일으켜 편안하게 쾌변을 도와준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차전자피 인체 적용 시험 결과 배변이 불편한 사람에게 차전자피를 섭취시킨결과 변의 무게, 배변빈도가 유의하게 증가하고 변의 경도, 통증이 유의하게 감소하는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콜레스테롤이 약간 높은 성인에게 섭취시킨결과 콜레스테롤 함량과 콜레스테롤 흡수 정도가 유의하게 감소하였다고 보고하였다. 하루한번! 간편하게 물에 타서 섭취하는 명품차 차전자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인정한 믿을 수 있는 제품 아침엔쾌변으로 더 이상 배변으로 스트레스 받지말자. 아랫배가 더부룩하고 답답하신분, 배변 능력이 약해 쾌변을 못하는분, 장의 연동 운동이 원활하지 못한 분, 배변 후에도 잔변감이 남아있는분,변이 묽고 화장실에 자주 가시는분, 가스가 잘 차고 아랫배가 더부룩한분 께 적극 권해드린다. 1일 1회, 1포(6.5g)씩을 물에 녹여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한다. 특가행사로 6박스(3개월분) 99,800원에 드리며 오늘 구입하시는 분들께 3일 무료체험기회를 드린다. 더 자세한 내용은 www.더드림365.com 또는 전화 **1800-6639**로 문의하면 된다. 입금계좌〈농협〉301-0236-7453-61 (주)더드림365이다. 택배비 3,000원은 소비자 부담.